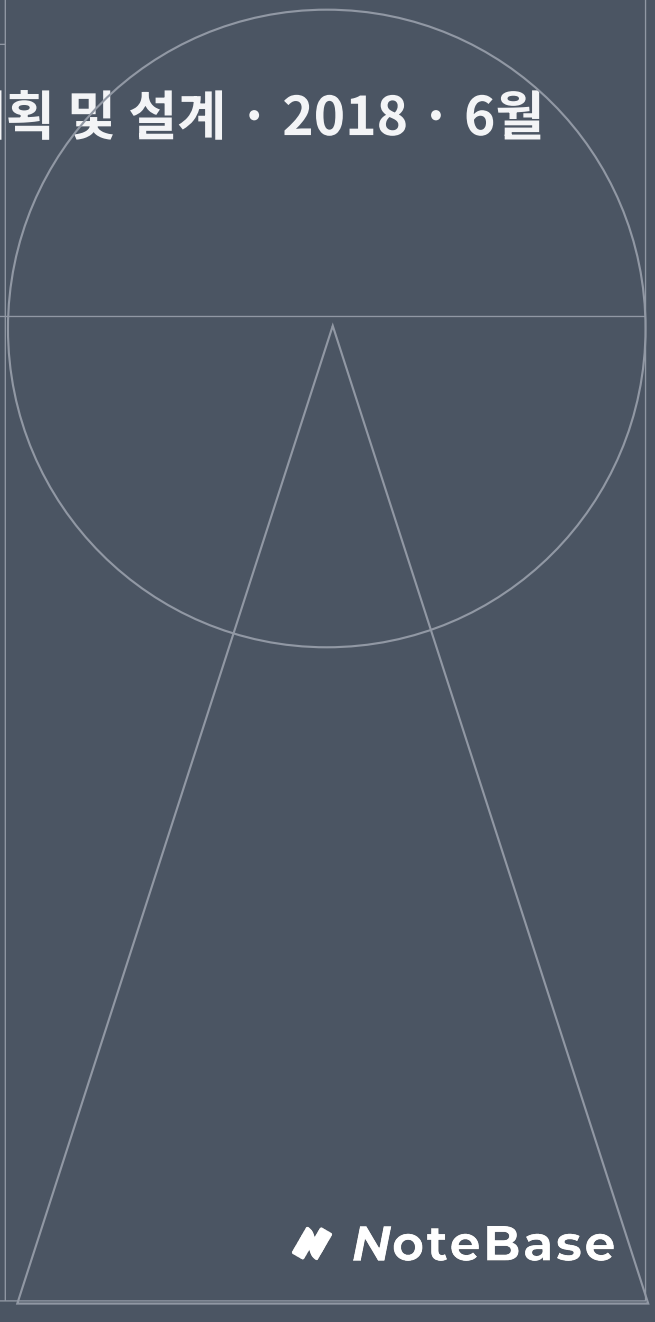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18 · 6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18 · 6월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18 · 6월

문 1. 물리적 환경이 지닌 시각적 흡수능력(visual absorptio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각적 흡수능력은 시각적 투과성(visual transparency)과 시각적 복잡성(visual complexity)의 함수로 표현된다.

② 시각적 흡수능력이 높은 곳은 개발에 따른 시각적 영향이 크다.

③ 시각적 복잡성은 상호 구별될 수 있는 시각적 요소(visual element)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

④ 시각적 투과성은 식생의 밀집 정도 및 지형적으로 둘러싸인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각적 흡수능력을 이루는 핵심 요소인 시각적 투과성과 시각적 복잡성의 의미, 그리고 시각적 흡수능력과 개발의 시각영향 사이의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시각적 흡수능력은 경관이 개발이나 시설물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얼마나 무리 없이 받아들이는지를 뜻한다.
시각적 투과성은 시선이 경관 내부로 얼마나 쉽게 통과하는지를 뜻하며, 식생이 밀집하고 지형적으로 둘러싸일수록 낮아지고 개방될수록 높아진다.
시각적 복잡성은 시야 안에서 서로 구별되는 시각적 요소의 수와 다양성을 뜻하며, 요소가 많고 다양한 경관일수록 높아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시각적 흡수능력은 일반적으로 시각적 투과성과 시각적 복잡성의 결합으로 설명된다. 즉, 얼마나 잘 보이는지와 시야를 이루는 요소가 얼마나 다양한지가 함께 흡수능력을 좌우한다.

② X
틀린 부분은 "개발에 따른 시각적 영향이 크다"이다. 실제로는 시각적 흡수능력이 높은 곳일수록 새로운 개발 요소가 주변 경관 속에 덜 두드러지므로 시각적 영향은 작다.

③ O
시각적 복잡성은 상호 구별될 수 있는 시각적 요소의 수에 의해 판단한다. 시야 안에 구분되는 요소가 많을수록 복잡성은 커진다.

④ O
시각적 투과성은 식생의 밀집 정도와 지형적 위요 정도에 영향을 받는다. 식생이 빽빽하고 지형적으로 둘러싸인 곳일수록 시선의 관통이 어려워 투과성은 낮아진다.

오답 포인트

시각적 흡수능력이 높다는 말을 개발 영향이 크게 드러난다는 뜻으로 거꾸로 이해하면 ②에 끌리기 쉽다. 이 개념은 변화가 더 잘 보인다는 뜻이 아니라 변화가 주변 경관에 더 잘 흡수된다는 뜻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각적 흡수능력이 높다는 표현이 나오면 먼저 개발 흔적이 눈에 잘 띄는지 덜 띄는지를 연결해 판단한다. 그다음 투과성은 개방성, 복잡성은 구별되는 요소 수로 나누어 보면 선지 판단이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흡수능력이 높을수록 개발 영향은 작아지고, 복잡성은 요소 수로 판단되며, 식생 밀집과 지형적 위요는 투과성을 낮춘다.

NoteBase

문 2. 도시자연공원의 기본설계 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적 공간과 정적 공간을 공원의 자연특성에 따라 배치한다.

② 공원시설구역은 녹지자연도를 조사하여 선정하며, 시설부지는 임간 내의 나지를 활용해 최대임상을 보호하도록 설계한다.

③ 기존 수림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산림공간에서 자연적 체험이 수반될 수 있도록 하며, 식재수종은 가능한 한 자생수종과 향토수종으로 한다.

④ 면적의 30~50% 정도는 집단시설지로 확보해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도시자연공원의 기본설계 기준에서 시설 배치 원칙과 환경보전녹지 확보 기준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도시자연공원의 기본설계는 자연보전이 우선인 공원 유형에 맞추어 기존 지형과 수림을 살리고 시설은 훼손이 적은 곳에 최소한으로 배치하는 기준이다.
공원시설구역은 녹지자연도와 임상을 고려해 선정하고, 시설부지는 가능한 한 임간 내 나지를 활용하여 기존 숲 훼손을 줄이는 공간이다.
환경보전녹지는 공원 면적의 상당 부분을 보전용 녹지로 남겨 생태성과 경관을 유지하는 공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동적 공간과 정적 공간을 공원의 자연특성에 맞추어 배치하는 것은 도시자연공원 설계의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 활동 공간과 휴식 공간을 자연지형과 이용 특성에 맞게 나누어 두는 취지이다.

② O
공원시설구역은 녹지자연도를 조사해 선정하고, 시설부지는 임간 내 나지를 활용하여 최대 임상을 보호하는 것이 맞다. 시설을 넣더라도 기존 수림 훼손을 최소화하는 기준이다.

③ O
기존 수림 활용을 극대화하여 산림공간에서 자연적 체험이 수반되도록 하고, 식재수종도 가능한 한 자생수종과 향토수종으로 하는 것이 맞다. 도시자연공원은 인공적 연출보다 기존 생태기반 유지가 우선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집단시설지로 확보"이다. 도시자연공원에서 면적의 30~50% 정도는 집단시설지가 아니라 환경보전녹지로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올바르게는 "면적의 30~50% 정도는 환경보전녹지로 확보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30~50%라는 수치 자체를 외웠더라도 그 대상이 무엇인지 바꿔치기하면 오답이 된다. 도시자연공원은 시설 확충형 공원이 아니라 자연보전형 공원이므로 집단시설지 확대 문구가 나오면 바로 의심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도시자연공원 선지는 먼저 보전 키워드가 살아 있는지 본다. 기존 수림 활용, 임간 나지 활용, 자생·향토수종, 환경보전녹지 확보처럼 자연보전 중심이면 맞는 방향이고, 집단시설지 확대처럼 시설 중심으로 바꾸면 틀린 방향이다.

암기 포인트

도시자연공원은 시설 집적보다 산림 보전이 우선이고, 30~50%는 집단시설지가 아니라 환경보전녹지이다.

NoteBase

문 3. 「경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 대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형, 지세, 수계 및 식생 등 자연적 여건

② 인구, 토지 이용, 산업, 교통 및 문화 등 인문·사회적 여건

③ 경관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

④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유무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경관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한 경관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 대상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기초조사는 경관계획을 세우거나 바꾸기 전에 그 지역의 자연환경, 사회환경, 관련 계획 등을 미리 조사하는 단계이다.

핵심 구분

제4조는 경관계획의 기초조사 대상을 규정한다. 반면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은 제9조 사항이므로 조사대상 조문과 추진조직 조문을 구분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1번: O. 제4조 제1호는 지형, 지세, 수계 및 식생 등 자연적 여건을 기초조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2번: O. 제4조 제2호는 인구, 토지 이용, 산업, 교통 및 문화 등 인문·사회적 여건을 조사 대상으로 둔다.
3번: O. 제4조 제3호는 경관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을 조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4번: X.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유무는 제4조의 기초조사 대상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유무'이다. 올바르게는 '그 밖에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이 제4조 제4호에 해당하고,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등은 시행령 제9조에서 다룬다.

오답 포인트

기초조사 대상 조문과 경관사업 추진기구 조문을 섞으면 틀리기 쉽다. 4번은 경관 분야 용어라는 점은 맞지만 경관계획의 사전조사 항목이 아니라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에 관한 별도 규정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문형 문제에서는 먼저 무엇을 묻는 조문인지 확인한 뒤 각 호가 자연적 여건, 인문·사회적 여건, 관련 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처럼 같은 범주의 조사대상인지 본다. 조직, 운영, 절차처럼 성격이 다른 문구가 나오면 다른 조문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

암기 포인트

경관계획 기초조사 제4조는 자연, 인문·사회, 관련 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고 협의체 조직은 제9조이다.

NoteBase

문 4. 조경가(Landscape Architect)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하였으며, 조경의 학문적 영역을 정립한 사람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Frederick Law Olmsted)

② 험프리 렙턴(Humphrey Repton)

③ 윌리엄 켄트(William Kent)

④ 윌리엄 챔버(William Chamber)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경사 인물과 대표 업적을 연결하는 문제로, 누가 'Landscape Architect'라는 명칭을 가장 이르게 사용하며 조경의 전문 영역을 정리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 1858년 캘버트 복스와 함께 뉴욕 센트럴파크 설계안으로 당선되면서 'Landscape Architect'라는 직함을 처음으로 공식 사용하였고, 공원과 도시 경관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며 이 직능을 정착시킨 인물이다.
험프리 렙턴: 영국 풍경식 정원의 실무가로서 레드북을 통해 설계 전후를 제시한 인물이다.
윌리엄 켄트: 영국 자연풍경식 정원의 초기 전개에 기여한 디자이너이다.
윌리엄 챔버: 건축가로서 중국풍 정원 취향을 소개한 인물이지, 조경 직능의 정립자로 보기는 어렵다.

선지별 해설

① O: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는 1858년 뉴욕 센트럴파크 설계 과정에서 'Landscape Architect'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하였고, 이 명칭과 함께 공원 설계, 도시 경관 설계, 공공 공간 계획을 전문 영역으로 체계화한 인물이다.
② X: 험프리 렙턴은 영국 풍경식 정원의 대표 실무가이지만, 이 문장에서 묻는 '조경가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하고 조경의 학문적 영역을 정리한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 올바르게는 '험프리 렙턴은 레드북으로 유명한 영국 풍경식 정원가이다'라고 정리한다.
③ X: 윌리엄 켄트는 영국 자연풍경식 정원의 전개에 기여한 인물이지만, 조경가라는 직능 명칭을 처음 사용하며 학문 영역을 정리한 인물은 아니다. 올바르게는 '윌리엄 켄트는 자연풍경식 정원의 초기 형성에 기여한 인물이다'라고 본다.
④ X: 윌리엄 챔버는 건축과 정원론에서 중국 취향을 소개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문장의 핵심 업적과 연결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윌리엄 챔버는 중국풍 정원 취향을 소개한 건축가이다'라고 정리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영국 정원사 인물인 렙턴과 켄트가 조경사에서 자주 함께 나오므로 '조경의 선구자'라는 막연한 인상만으로 고르면 오답이 된다. 이 문항의 핵심은 단순한 정원 양식의 선구자가 아니라 'Landscape Architect'라는 전문 직능의 정착과 체계화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사 문제에서는 이름만 보고 넓게 판단하기보다 '인물명과 대표 직능 또는 대표 업적'을 바로 연결해 판단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옴스테드는 공원 체계와 조경 직능의 정착, 렙턴은 레드북과 영국 풍경식 정원, 켄트는 자연풍경식 정원, 챔버는 중국 취향 정원론으로 구분된다.

암기 포인트

옴스테드 = Landscape Architect의 대표 인물, 렙턴 = 레드북, 켄트 = 자연풍경식 정원, 챔버 = 중국풍 정원론이다.

NoteBase

문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녹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도시녹화는 식생, 물, 토양 등 자연친화적 환경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② 도시녹화계획에는 「자연공원법」 제18조에 따라 도시지역의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된 시책이 반영되어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정하고 있다.

④ 재해발생시의 피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녹지에는 관목 또는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을 심으며, 녹화면적률이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도시녹화의 법정 정의, 도시녹화계획에 반영되는 시책의 근거법, 서울시 조례상 중점녹화지구, 완충녹지의 녹화면적률 기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도시녹화는 식생, 물,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의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중점녹화지구는 도시녹화가 특히 필요한 지역을 조례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녹화면적률은 녹지면적에 대한 식물 등의 가지 및 잎의 수평투영면적 비율을 말한다.

핵심 구분

도시녹화의 정의는 막연한 대상지역 설명이 아니라 도시지역의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행위 개념이다.
도시녹화계획에 반영되는 시책의 근거는 「자연공원법」이 아니라 「산림기본법」이다.
서울특별시 조례는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고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재해발생 시 피난 등을 위한 완충녹지의 녹화면적률 기준은 50퍼센트가 아니라 70퍼센트 이상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18 · 6월

선지별 해설

① X
도시녹화는 단순히 자연친화적 환경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도로 끝나는 개념이 아니라, 자연친화적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의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뜻한다. 선택지는 도시지역의 공간이라는 법정 범위와 식생 조성이라는 행위 요소를 빠뜨려 불정확하다.
틀린 표현: "자연친화적 환경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올바른 표현: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의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② X
도시녹화계획에는 도시지역의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된 「산림기본법」 제18조상의 시책이 반영되어야 한다. 「자연공원법」은 이 조항의 근거가 아니다.
틀린 표현: "자연공원법 제18조"
올바른 표현: "산림기본법 제18조"

③ O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고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정하고 있다. 선지의 진술이 조례 내용과 부합한다.

④ X
재해발생 시의 피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녹지에는 관목 또는 잔디 등 지피식물을 심고, 녹화면적률은 7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50퍼센트 기준은 다른 경우의 기준과 혼동한 것이다.
틀린 표현: "녹화면적률이 50퍼센트 이상"
올바른 표현: "녹화면적률이 70퍼센트 이상"

오답 포인트

이 문제를 틀렸다면 정의조항의 핵심 요소를 축약해서 읽거나, 도시녹화계획의 반영 법령명을 「자연공원법」으로 바꿔 끼우거나, 완충녹지의 녹화면적률 수치를 50퍼센트와 70퍼센트 사이에서 혼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문형 선지는 먼저 정의조항인지, 계획 반영 규정인지, 조례상 지정제도인지, 시행규칙상 수치기준인지 유형을 나누어 본다. 그 다음 법령명, 대상 범위, 행위 요소, 수치를 원문 기준으로 대조하면 정답이 선명해진다.

암기 포인트

도시녹화는 도시공간 식생 조성, 도시녹화계획은 산림기본법, 서울시는 중점녹화지구, 피난형 완충녹지는 70퍼센트이다.

NoteBase

문 6. 토양형성과정(soil processes)에서 일반적인 토양깊이에 따른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C층: 나뭇잎, 가지 등이 떨어져 분해되지 않고 남아 있는 유기물이 많은 층

② A층: 용해되어 내려온 점토, 철분, 산화알루미늄 등을 포함한 층

③ B층: 점토, 철분, 산화알루미늄 성분이 용해되어 아래쪽으로 빠져나간 층

④ C층: 풍화가 가장 덜 이루어진 성분을 갖고 있는 층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토양 단면의 층위별 특징, 특히 O층·A층·B층·C층의 기능과 풍화 정도를 구분하는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O층은 낙엽·가지 등 분해 중인 유기물이 쌓인 유기물층이다.
A층은 표토로서 유기물이 섞인 광물토가 있는 층이며 용탈이 시작되는 층이다.
B층은 위층에서 씻겨 내려온 점토·철·알루미늄 등이 집적되는 심토층이다.
C층은 기반암이 충분히 토양화되기 전의 모재층으로 풍화가 가장 덜 진행된 성분을 가진다.

선지별 해설

① X: '나뭇잎, 가지 등이 떨어져 분해되지 않고 남아 있는 유기물이 많은 층'은 C층이 아니라 O층의 설명이다. C층은 유기물층이 아니라 비교적 덜 풍화된 모재층이다.
② X: '용해되어 내려온 점토, 철분, 산화알루미늄 등을 포함한 층'은 A층이 아니라 B층의 설명이다. A층은 표토이고, 이런 물질이 집적되는 층은 B층이다.
③ X: '점토, 철분, 산화알루미늄 성분이 용해되어 아래쪽으로 빠져나간 층'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B층은 빠져나가는 층이 아니라 위층에서 이동한 성분이 모이는 집적층이며, 빠져나가는 작용은 주로 A층이나 E층의 용탈로 이해한다.
④ O: C층은 모재의 성격이 강하게 남아 있는 층으로, 다른 층보다 풍화가 덜 진행된 성분을 가진다. 일반적인 토양 단면에서 C층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유기물층(O층), 용탈층(A층 또는 E층), 집적층(B층), 모재층(C층)을 뒤바꾸면 쉽게 틀린다. 특히 '내려온 성분이 포함된다'는 표현은 B층, '빠져나간다'는 표현은 A층 또는 E층 쪽 신호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의 핵심 단어를 먼저 잡으면 된다. 유기물이 많다=O층, 표토와 용탈=A층, 점토·철·알루미늄의 집적=B층, 덜 풍화된 모재=C층으로 대응하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O는 유기물, A는 표토·용탈, B는 집적, C는 덜 풍화된 모재층이다.

NoteBase

문 7. 일반적인 아파트 조경계획 과정의 흐름도 순서를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적지선정 → 단지분석 → 시설배치와 식재계획 → 구획과 토지이용계획 → 실시설계

② 적지선정 → 구획과 토지이용계획 → 단지분석 → 시설배치와 식재계획 → 실시설계

③ 적지선정 → 단지분석 → 구획과 토지이용계획 → 시설배치와 식재계획 → 실시설계

④ 적지선정 → 시설배치와 식재계획 → 구획과 토지이용계획 → 단지분석 → 실시설계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일반적인 아파트 조경계획에서 분석 단계, 기본계획 단계, 구체 설계 단계의 선후관계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적지선정 - 사업 목적에 맞는 대상지를 정하는 단계이다.
2. 단지분석 - 지형, 동선, 조망, 미기후, 기존 식생 등 대상지 조건을 조사하여 계획의 기초자료를 정리하는 단계이다.
3. 구획과 토지이용계획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간 구조와 용도 배분의 큰 틀을 정하는 단계이다.
4. 시설배치와 식재계획 - 토지이용계획 위에서 보행로, 휴게공간, 놀이시설, 녹지와 수목 배치를 구체화하는 단계이다.
5. 실시설계 - 앞 단계에서 정리된 계획을 시공 가능한 도면과 세부 규격으로 확정하는 단계이다.

왜 이 순서인가: 단지분석이 끝나야 토지이용의 큰 틀을 정할 수 있고, 그 큰 틀 위에서 다시 시설배치와 식재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시설배치와 식재계획'을 '구획과 토지이용계획'보다 먼저 둔 것이 틀리다. 세부 배치는 공간 구조와 용도 배분이 정해진 뒤에 가능하다. 올바르게는 적지선정 → 단지분석 → 구획과 토지이용계획 → 시설배치와 식재계획 → 실시설계이다.

② X: '구획과 토지이용계획'을 '단지분석'보다 먼저 둔 것이 틀리다. 대상지의 자연적·공간적 조건을 먼저 읽어야 용도 구획의 기준이 생긴다. 올바르게는 적지선정 뒤에 단지분석이 오고, 그 다음에 구획과 토지이용계획이 온다.

③ O: 적지선정 후 단지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근거로 구획과 토지이용계획을 세운 다음 시설배치와 식재계획으로 구체화하고 마지막에 실시설계로 마무리하므로 올바른 순서이다.

④ X: '시설배치와 식재계획'을 '구획과 토지이용계획'과 '단지분석'보다 앞세운 것이 틀리다. 세부 배치계획은 분석과 토지이용의 큰 틀이 선행되어야 성립한다. 올바르게는 적지선정 → 단지분석 → 구획과 토지이용계획 → 시설배치와 식재계획 → 실시설계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구획과 토지이용계획'과 '시설배치와 식재계획'을 같은 계획 단계로 보고 순서를 뒤섞는 데 있다. 토지이용계획은 큰 틀을 잡는 기본계획이고, 시설배치와 식재계획은 그 틀을 실제 공간 구성으로 구체화하는 단계라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경계획 순서 문제는 선정 → 분석 → 기본구상 → 구체배치 → 실시설계의 흐름으로 판단하면 된다. 큰 틀을 정하는 단계가 세부 배치보다 항상 먼저 온다고 보면 선지 판단이 쉬워진다.

암기 포인트

적지선정-단지분석-구획과 토지이용-시설배치와 식재-실시설계의 순서로, '선정 후 분석, 큰 틀 후 세부 배치'로 기억하면 된다.

NoteBase

문 8. 식재기능별 적용 수종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녹음식재는 지하고가 낮은 침엽수가 적합하다.

② 차폐식재는 대개 지하고가 높고 전정에 약한 수종이 적합하다.

③ 경계식재는 지엽이 치밀하고 전정에 강한 수종이 적합하다.

④ 방풍식재는 지하고가 높고 잎이 넓은 낙엽활엽교목이 적합하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녹음식재·차폐식재·경계식재·방풍식재의 기능별 요구 특성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녹음식재는 사람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식재로서 수관이 넓고 차광 효과가 큰 교목이 중심이다.
차폐식재는 시선이나 시설을 가리는 식재로서 지엽이 치밀하고 하부까지 가지가 발달하며 전정에 잘 견디는 수종이 유리하다.
경계식재는 공간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식재로서 분지성이 좋고 지엽이 치밀하며 전정에 강한 수종이 적합하다.
방풍식재는 바람을 줄이는 식재로서 하부까지 치밀하고 연중 효과가 유지되는 상록성 교목이 유리하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18 · 6월

선지별 해설

① X
녹음식재의 핵심은 낮은 지하고의 침엽수가 아니라 넓은 수관과 충분한 차광이다.
틀린 표현은 "지하고가 낮은 침엽수"이다.
올바르게는 수관이 넓고 그늘 형성이 좋은 활엽교목이 적합하다고 본다.

② X
차폐식재는 내부를 가리는 기능이므로 지하고가 높으면 하부가 비고, 전정에 약하면 형태 유지가 어렵다.
틀린 표현은 "지하고가 높고 전정에 약한"이다.
올바르게는 지하고가 낮거나 중간이고 지엽이 치밀하며 전정에 강한 수종이 적합하다.

③ O
경계식재는 경계선을 또렷하게 보여 주어야 하므로 가지와 잎이 촘촘하고 전정 후에도 수형 유지가 쉬운 수종이 맞다.
따라서 "지엽이 치밀하고 전정에 강한 수종"이라는 설명이 타당하다.

④ X
방풍식재는 바람을 걸러야 하므로 하부까지 치밀하고 연중 잎이 유지되는 수종이 유리하다.
틀린 표현은 "지하고가 높고 잎이 넓은 낙엽활엽교목"이다.
올바르게는 가지와 잎이 치밀한 상록 교목이 적합하다.

오답 포인트

기능명을 보고 막연히 큰 나무를 떠올리면 틀리기 쉽다. ②와 ④는 차폐와 방풍에 필요한 특성을 정반대로 바꾸어 놓았고, ①은 녹음식재의 핵심인 넓은 수관과 차광성을 침엽수와 낮은 지하고로 바꾸어 놓은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기능을 본다. 녹음이면 넓은 수관과 차광, 차폐와 경계면 지엽 밀도와 전정 적응성, 방풍이면 하부까지 치밀한 상록성을 기준으로 선지를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경계·차폐는 치밀성과 전정성, 녹음은 넓은 수관, 방풍은 하부까지 치밀한 상록성이다.

NoteBase

문 9. 리튼(Litton)이 제시한 산림경관의 보조적 유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부경관
② 초점경관
③ 관계경관
④ 일시경관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Litton의 산림경관 7유형 가운데 기본유형과 보조적 유형의 소속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Litton은 산림경관을 기본유형과 보조적 유형으로 나누어 본다.
기본유형에는 전경관, 지형경관, 위요경관, 초점경관이 들어간다.
보조적 유형에는 관개경관, 세부경관, 일시경관이 들어간다.

선지별 해설

① O
세부경관은 잎, 꽃, 수피처럼 가까운 거리에서 세부를 관찰하는 유형이므로 보조적 유형에 해당한다.

② X
틀린 부분은 초점경관을 보조적 유형으로 본 점이다.
초점경관은 시선이 한 지점으로 모이도록 구성되는 경관으로 기본유형에 속한다.
올바르게는 보조적 유형이 아니라 기본유형이다.

③ O
관개경관은 수관 아래나 숲길처럼 둘러싸인 공간감을 느끼는 유형이므로 보조적 유형에 해당한다.

④ O
일시경관은 빛, 안개, 계절, 기상 변화처럼 시간적 조건에 따라 잠시 달라지는 경관이므로 보조적 유형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초점경관은 이름 때문에 세부적으로 한 대상만 보는 경관처럼 느껴져 보조적 유형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분류 기준은 시선의 집중 여부이며, 초점경관은 기본유형에 속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Litton 문제는 먼저 기본유형 4개와 보조적 유형 3개를 묶어서 판단하면 된다. 초점경관이 보이면 기본유형으로 처리하고, 관개경관·세부경관·일시경관이 보이면 보조적 유형으로 처리된다.

암기 포인트

보조적 유형은 관·세·일이고, 초점은 기본유형이다.

NoteBase

문 10. 「조경설계기준」(2016)에 따른 자전거 도로의 규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전거 도로의 종단경사는 2.5~3%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7%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② 종단경사가 4%보다 급한 오르막 도로는 제한 길이(90~220m)를 두어야 한다.

③ 설계속도는 자전거 통행 도로의 종류에 따라 10~30km/hr 이내로 한다.

④ 자전거의 안전을 위한 최소곡선반경은 자전거의 설계속도에 따라 10m 이상으로 한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조경설계기준」(2016)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선형 기준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종단경사의 표준값과 최대값, 오르막 제한길이, 설계속도, 최소곡선반경의 수치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종단경사 = 자전거도로 진행 방향으로 생기는 세로 기울기이다.
설계속도 = 자전거도로의 선형과 시거, 곡선반경을 정하는 기준 속도이다.
최소곡선반경 = 해당 설계속도에서 자전거가 안전하게 회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수평곡선 반지름이다.

핵심 구분

「조경설계기준」(2016)상 자전거도로의 종단경사는 2.5~3%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5%까지 허용된다.
또한 종단경사가 4%보다 급한 오르막은 제한길이 90~220m를 두며, 설계속도는 10~30km/h 범위이고, 단독 설치 자전거도로의 최소곡선반경은 설계속도에 따라 10m 이상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자전거도로의 종단경사는 2.5~3%가 표준이라는 전반부는 맞지만, 최대 허용치를 7%라고 한 부분이 틀리다.
틀린 표현: 최대 7%를 넘지 않아야 한다.
올바른 표현: 최대 5%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② O
종단경사가 4%보다 급한 오르막 구간에는 자전거 이용자의 부담과 안전을 고려해 제한길이 90~220m를 둔다.
틀린 표현: 없음.
올바른 표현: 제시문 그대로 적절하다.

③ O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는 도로 종류에 따라 10~30km/h 범위에서 정한다.
틀린 표현: 없음.
올바른 표현: 제시문 그대로 적절하다.

④ O
자전거도로가 단독으로 설치될 때에는 설계속도에 맞는 곡선반경을 확보해야 하며, 안전을 위한 최소곡선반경은 10m 이상이다.
틀린 표현: 없음.
올바른 표현: 제시문 그대로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①은 종단경사의 표준값 2.5~3%는 맞게 제시하고 최대값만 7%로 바꾸어 놓은 함정이다. 수험생이 표준값과 최대 허용값을 한 묶음으로 외우지 않으면 수치 하나만 바뀐 오답을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전거도로 기준 문제는 먼저 종단경사 최대값, 오르막 제한길이, 설계속도, 최소곡선반경처럼 숫자로 출제되는 항목을 먼저 대조하면 판단이 빠르다. 특히 표준값과 최대 허용값이 함께 제시된 문장은 뒤 숫자가 바뀌었는지를 우선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자전거도로는 종단경사 2.5~3% 표준, 최대 5%, 4% 초과 오르막은 제한길이, 곡선반경은 최소 10m 이상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1. 생태적 분석을 통한 계획 · 설계의 연구자와 그 적용사례가 일치하지 않은 것은?

① 알트만(Altman, 1975)의 크리스탈워터스 퍼머컬처마을
② 레이만(Reimann, 1978)의 에너지보존을 위한 설계
③ 파커(Parker, 1982)의 탁아소에서 배식 전 · 후의 에너지 소모량 비교
④ 도니(Dorney, 1979)의 미국 도시의 9개 생물지역구분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생태적 분석을 통한 계획·설계 분야에서 연구자 이름과 대표 적용사례를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인물·사례 매칭형 문항이다.

핵심 정리

알트만(1975): 프라이버시, 개인공간, 영역성, 혼잡 등 환경심리와 인간행태를 다룬 연구자이다.
레이만(1978): 부지계획과 배치기법을 통해 에너지 보존을 도모하는 설계와 연결된다.
파커(1982): 생활 장면에서의 활동과 에너지 소모를 비교하는 미시적 행태 분석 사례와 연결된다.
도니(1979): 도시생태계를 더 큰 생물지리 단위와 연계해 유형화하는 도시 생태 구분 연구와 연결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알트만의 1975년 대표 저작은 프라이버시·개인공간·영역성 같은 환경심리 연구이며 크리스탈워터스 퍼머컬처마을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크리스탈워터스는 공식 소개에서도 1987년에 설립된 퍼머컬처 마을이며 맥스 린데거 등 퍼머컬처 설계자와 연결된다. 틀린 표현은 "알트만(Altman, 1975)의 크리스탈워터스 퍼머컬처마을"이며, 올바르게는 "알트만(1975)의 프라이버시·개인공간·영역성 연구" 또는 "크리스탈워터스 퍼머컬처마을은 퍼머컬처 설계 사례"이다.
② O. 레이만은 1978년 수동적 에너지 절약을 위한 부지설계와 연결되며, 에너지 보존을 위한 설계라는 진술이 대표 주제와 맞는다.
③ O. 파커의 사례는 탁아소에서 배식 전·후의 활동과 에너지 소모를 비교한 행태 분석 사례로 정리되며, 선지의 연결이 맞다.
④ O. 도니의 1979년 연구는 도시생태계를 더 큰 생물지리 경관 단위와 관련지어 유형화한 것으로, 미국 도시의 생물지역 구분과 연결되는 설명이 타당하다.

오답 포인트

①은 "퍼머컬처마을"이라는 강한 키워드 때문에 생태설계 전반의 연구자와 무리하게 연결하면 틀리기 쉽다. 알트만은 생태설계 사례 연구자가 아니라 환경심리와 인간행태 쪽 인물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 매칭 문제는 먼저 연구자의 대표 분야를 한 단어로 고정해 두고 판단하면 빠르다. 알트만은 환경심리, 레이만은 에너지보존 설계, 파커는 행태·에너지 비교, 도니는 도시생태 유형화로 잡으면 낯선 사례명이 나와도 오답 연결을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알트만=프라이버시·영역성, 레이만=에너지보존 설계, 파커=행태·에너지 비교, 도니=도시생태 유형화이다.

NoteBase

문 12. 시설 공급규모 산정 시 이용객 추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평균체재시간이 길면 최대시 이용자수가 늘어나며 평균체재시간이 짧으면 최대시 이용자수가 줄어든다.

② 최대일률이 높다는 것은 연간 관광객의 특정일 집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최대일률은 4계절형으로 갈수록 낮게 나타난다.

③ 체류시간이 길면 회전율이 낮고 체류시간이 짧으면 회전율이 높다.

④ 최대일 이용자수는 계획연도 또는 목표연도의 연간 이용자수에 최대일률을, 최대시 이용자수는 최대일 이용자수에 회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설 공급규모 산정에서 쓰는 최대일률과 회전율의 의미, 그리고 체류시간과 회전율의 방향을 정확히 구분하는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최대일률은 연간 이용자수 중 최대일 이용자수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회전율은 최대일 이용자수 중 최대시 이용자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같은 시간대에 얼마나 겹쳐 머무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다.
여기서의 회전율은 하루에 시설이 몇 번 회전하는가를 뜻하는 일상적 의미의 회전 횟수가 아니라, 최대일 대비 최대시의 동시 체재 비율을 뜻하는 시설계획 맥락의 정의라는 점에 유의한다.
따라서 평균체재시간 또는 체류시간이 길수록 같은 시각에 겹치는 이용자가 많아져 회전율은 커지고, 체류시간이 짧을수록 회전율은 작아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평균체재시간이 길면 이용자들이 같은 시간대에 더 많이 겹쳐 존재하므로 최대시 이용자수는 커진다.
- 반대로 평균체재시간이 짧으면 시간대별 중복 체류가 줄어 최대시 이용자수는 작아진다.

② O
- 최대일률이 높다는 것은 연간 이용자수가 특정 시기와 특정 일자에 강하게 집중된다는 뜻이다.
- 4계절형은 이용이 연중 비교적 고르게 분산되는 유형이므로 최대일률이 낮게 나타난다.

③ X
- 틀린 표현은 "체류시간이 길면 회전율이 낮고"이다.
- 이 문맥의 회전율은 최대일 이용자수 대비 최대시 이용자수의 비율이므로 체류시간이 길수록 같은 시간대 중복 이용이 커져 회전율이 높아진다.
- 올바르게는 "체류시간이 길면 회전율이 높고 체류시간이 짧으면 회전율이 낮다"이다.

④ O
- 최대일 이용자수는 계획연도 또는 목표연도의 연간 이용자수에 최대일률을 곱해 산정한다.
- 최대시 이용자수는 최대일 이용자수에 회전율을 곱해 산정하므로 선지의 관계식은 맞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회전율"이라는 말의 일상적 어감 때문에 체류시간이 길면 회전이 느려져 수치가 작아진다고 거꾸로 판단하는 데 있다. 시설 계획에서의 회전율은 회전 횟수 자체가 아니라 최대일 이용자수 중 최대시에 동시에 존재하는 비율로 보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설 공급규모 문제는 먼저 연간 이용자수에서 최대일률로 최대일 이용자수를 구하고, 다시 회전율로 최대시 이용자수를 구하는 순서로 본다. 그다음 체류시간이 길면 동시 체류가 커지고 체류시간이 짧으면 동시 체류가 작아진다는 방향을 대입하면 선지의 O/X를 안정적으로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최대일률은 연간에서 최대일로 가는 비율이고, 회전율은 최대일에서 최대시로 가는 비율이다. 체류시간이 길수록 회전율은 커진다.

NoteBase

문 13. 식재설계 시 고려해야 할 물리적 요소인 식물재료의 질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질감은 볼 수 있거나 느낄 수 있는 어떤 식물재료 표면의 질을 의미한다.

② 일반적으로 큰 잎이나 줄기를 가지는 식물은 질감이 거칠다.

③ 거친 질감에서 고운 질감으로 연속되는 식재구성은 상대적으로 가깝게 보이는 느낌을 준다.

④ 질감이 거친 수목에 의해 생기는 그림자는 상대적으로 진하게 보인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식물재료의 질감이 잎과 줄기 크기, 그림자, 원근감에 어떤 시각 효과를 만드는지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질감은 식물재료 표면이 눈이나 촉감으로 느껴지는 거칠고 고운 성질이다.
거친 질감은 큰 잎, 굵은 줄기, 강한 명암 때문에 시각적으로 무겁고 가까워 보이는 성질이 있다.
고운 질감은 작은 잎, 섬세한 가지, 부드러운 명암 때문에 시각적으로 가볍고 멀어 보이는 성질이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질감은 식물 표면의 시각적·촉각적 성질을 뜻하므로 옳다.
② O: 일반적으로 잎이 크고 줄기가 굵을수록 질감은 거칠게 인식되므로 옳다.
③ X: 틀린 부분은 "상대적으로 가깝게 보이는"이다. 거친 질감에서 고운 질감으로 이어지면 시선이 뒤로 물러나며 깊이감과 원근감이 커져 상대적으로 멀어 보이는 느낌을 준다.
④ O: 거친 질감의 수목은 잎과 가지의 덩어리감이 커서 명암 대비가 강하고 그림자도 상대적으로 진하게 보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거친 질감 자체가 가까워 보인다는 사실과, 거친 질감에서 고운 질감으로 변화할 때 공간 전체가 더 깊어 보인다는 사실을 혼동하기 쉽다. ③은 이 두 효과를 뒤섞어 원근 방향을 반대로 서술한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질감 문제는 먼저 거친 질감과 고운 질감의 기본 시각 효과를 나눈다. 거친 질감은 무겁고 가깝고 진하게 보이며, 고운 질감은 가볍고 멀고 부드럽게 보인다. 배열이 거친 쪽에서 고운 쪽으로 이어지면 공간은 더 깊고 길게 인식된다.

암기 포인트

큰 잎·굵은 줄기·진한 그림자는 거친 질감이고, 거친 질감은 가깝게 보이며 고운 질감은 멀어 보인다.

NoteBase

문 14. 인간의 미적반응과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자극 → 자극선택 → 자극탐구 → 자극해석 → 반응

② 자극선택 → 자극 → 자극탐구 → 자극해석 → 반응

③ 자극 → 자극탐구 → 자극선택 → 자극해석 → 반응

④ 자극탐구 → 자극선택 → 자극 → 자극해석 → 반응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인간의 미적반응과정에서 자극을 받아들이고 의미를 해석해 반응에 이르기까지의 선후관계를 묻는다.

올바른 순서

1. 자극: 외부 대상이나 경관을 처음 접하는 단계이다.
2. 자극탐구: 자극의 형태, 색채, 질감 같은 특성을 살펴보는 단계이다.
3. 자극선택: 탐구한 정보 가운데 주목할 자극을 가려내는 단계이다.
4. 자극해석: 선택한 자극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단계이다.
5. 반응: 해석 결과에 따라 선호, 평가, 행동의사가 나타나는 단계이다.

왜 이 순서인가: 선택은 탐구된 정보가 있어야 가능하고, 해석은 선택된 자극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자극탐구가 자극선택보다 앞선다.

선지별 해설

1번: X. 틀린 부분은 자극선택을 자극탐구보다 앞에 둔 점이다. 올바르게는 자극 → 자극탐구 → 자극선택 → 자극해석 → 반응이다.

2번: X. 틀린 부분은 자극 자체보다 자극선택을 먼저 둔 점이다. 올바르게는 외부 자극을 먼저 접한 뒤 그 자극을 탐구하고 선택한다.

3번: O. 자극을 접한 뒤 그 내용을 탐구하고, 그중 의미 있는 자극을 선택한 다음 해석하여 반응에 이르는 흐름이 맞다.

4번: X. 틀린 부분은 자극탐구와 자극선택을 자극보다 앞에 둔 점이다. 올바르게는 자극이 먼저 존재해야 탐구와 선택이 가능하다.

오답 포인트

자극탐구와 자극선택을 비슷한 단계로 외우면 순서를 바꾸기 쉽다. 탐구는 정보를 살펴보는 과정이고 선택은 그중 핵심 자극을 가려내는 과정이라는 점이 함정의 핵심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순서형 문제는 대상이 먼저 제시되고, 그 대상을 살펴본 뒤, 중요한 요소를 고르고, 의미를 붙인 다음, 최종 반응이 나온다는 흐름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자극-탐구-선택-해석-반응은 보는 것에서 의미 부여와 평가로 넘어가는 흐름이다.

NoteBase

문 15.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녹화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지역에서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한다.

② 도시녹화계획은 공원녹지계획의 하위계획으로 도시전체를 대상으로 녹화계획을 수립한다.

③ 녹지기본계획에는 시설녹지에 대한 정비계획, 자전거도로계획, 경관도로계획이 포함된다.

④ 도시녹화계획은 공원녹지배치계획 및 체계 형성에 관한 계획과 상호 연계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공원녹지기본계획과 도시녹화계획의 계획 범위와 포함 내용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공원녹지기본계획 = 시의 도시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보전 방향을 정하는 장기 기본계획이다.
도시녹화계획 = 중점녹화지구와 도시녹화가 필요한 장소를 대상으로 녹화의 목표와 기간을 정하는 하위계획이다.

핵심 구분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부문계획으로 도시 전체 차원의 전략을 제시한다.
도시녹화계획은 그 하위계획이지만 적용 대상은 도시 전체가 아니라 중점녹화지역·중점녹화지구와 도시녹화가 가능한 장소이다.
녹지기본계획에는 녹지배치·보전·확충·복원·정비 및 관리계획이 포함되며 자전거도로계획과 경관도로계획도 함께 다룬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18 · 6월

선지별 해설

① O
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은 도시지역에서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과 도시녹화가 가능한 장소를 정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중점녹화지구 설정과 도시녹화계획 수립은 서로 연동된다.

② X
도시녹화계획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이라는 점은 맞지만, 대상이 도시 전체라는 부분이 틀리다.
도시녹화계획은 설정된 중점녹화지구와 도시녹화가 필요한 장소를 대상으로 한다.
틀린 표현: "도시전체를 대상으로"
올바른 표현: "중점녹화지구 및 도시녹화가 필요한 장소를 대상으로"

③ O
녹지기본계획은 녹지배치계획, 녹지보전계획, 녹지확충계획, 녹지복원계획, 녹지정비 및 관리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그 세부 내용으로 자전거도로계획과 경관도로계획도 포함된다.

④ O
도시녹화계획은 녹지배치계획 및 녹지망 형성계획과 상호 연계성을 가지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선지는 도시녹화계획이 공원녹지 체계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말하고 있으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하위계획이라는 표현만 보고 도시녹화계획도 도시 전체를 다루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하위계획 여부와 계획 대상 범위를 일부러 섞어 놓은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계획 관련 선지는 먼저 도시 전체를 다루는 기본계획인지, 특정 지구·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하위계획인지부터 구분하면 된다. 선지에 "도시전체"가 들어가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가까운지부터 본다.

암기 포인트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 전체, 도시녹화계획은 중점녹화지구 중심이다.

NoteBase

문 16. 가로 조경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가로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② 「경관법」 제1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경관법」 제16조는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③ 보행자 공간의 조성을 위해서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등을 달성해야 하며, 보행자 공간을 연속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일관성 있는 계획이 요구된다.

④ 도로 주변의 경관계획은 차량의 주행방향에 따라 도로의 위치와 구조를 고려하여 구간별로 특색있게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가로 조경계획과 관련된 법령상 수립주기, 경관사업의 대상, 보행공간 및 도로경관의 계획 원칙을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숫자 정보와 계획 원칙을 혼동하지 않는 데 있다.

용어 풀이

경관사업 =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연속경관 = 이동하는 시점에 따라 연속적으로 전개되는 도로경관이다.

핵심 구분

서울특별시 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주기는 5년이 아니라 10년이다. 반면 「경관법」 제16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대상에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 사업을 포함한다. 보행공간과 도로경관 계획은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연속성, 일관성을 바탕으로 하되 그 안에서 변화와 특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18 · 6월

선지별 해설

① X
-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상 가로수기본계획은 5년 주기가 아니라 10년 주기이다. 수립주기를 틀리게 적었으므로 오답이다.
- 틀린 표현: "5년마다"
- 올바른 표현: "10년마다"

② O
- 「경관법」 제16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등이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을 명시한다. 시행 주체와 사업 대상의 서술이 모두 맞다.

③ O
- 보행자 공간은 보행자의 안전성과 편리성, 쾌적성을 확보해야 하며, 통행 경로가 끊기지 않도록 연속성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보행공간을 따로따로 처리하면 전체 보행체계가 단절되므로 일관성 있는 계획이 요구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④ O
- 도로 주변 경관은 정지된 장면이 아니라 이동하면서 경험하는 연속경관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차량의 주행방향, 도로의 위치와 구조, 선형과 주변 경관을 함께 고려하여 구간별 특성을 부여하는 접근은 타당하다. 다만 이는 무질서하게 단절시키는 뜻이 아니라 전체 노선의 연속성과 통일성 안에서 변화를 주는 의미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조례명이 길고 내용이 익숙하지 않아 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막연히 5년으로 외우면 틀리기 쉽다. ④도 "구간별로 특색있게"라는 표현만 보고 연속성 원칙과 충돌한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도로경관은 연속성 속의 변화가 핵심이라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례나 법 조문이 직접 제시되면 먼저 숫자, 주체, 조동사 표현을 확인한다. 가로·보행 경관 문제는 안전성, 쾌적성, 연속성, 일관성을 기본 축으로 두고, 변화나 특색이 그 틀 안에서 설명되는지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가로수기본계획은 10년 주기이고, 경관법 제16조의 경관사업에는 가로환경 정비가 포함되며, 보행·도로경관은 안전성과 연속성이 기본이다.

NoteBase

문 17. 이용자의 영역성 확보와 다양한 모서리에 대한 선호를 발견하고, 이를 고려하여 벤치·앉음벽 등을 공원설계에 도입한 사람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뉴먼(Newman, 1973)

② 지젤(Zeisel, 1981)

③ 벨(Bell, 1978)

④ 조르다와 닐(Joardar & Neill, 1978)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공원 및 공개공지 설계에서 이용자의 영역성, 모서리 선호, 앉을 장소의 배치를 실증적으로 다룬 인물과 연구를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뉴먼(Newman): 방어공간 이론으로 주거지의 영역성, 자연적 감시, 범죄예방 설계를 강조한 인물이다.
지젤(Zeisel): 환경행태 연구와 관찰, 사용자 조사 방법을 체계화한 인물이다.
벨(Bell): 환경심리 전반을 정리한 학자로서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폭넓게 다룬 인물이다.
조르다와 닐(Joardar & Neill): 소규모 공공공간에서 이용자가 가장자리와 모서리, 다양한 앉을 장소를 선호한다는 점을 관찰하고 벤치·앉음벽 같은 설계 요소의 배치를 논의한 인물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뉴먼은 영역성이라는 키워드와 연결되지만, 핵심은 주거환경의 방어공간과 범죄예방이다. 틀린 부분은 '벤치·앉음벽 등을 공원설계에 도입한 사람'이라는 연결이다. 올바르게는 뉴먼은 자연적 감시와 영역성 강화를 통해 주거단지의 안전성을 높이는 설계 원리를 제시한 인물이다.
② X: 지젤은 환경설계 연구방법론과 행태관찰로 연결되는 인물이다. 틀린 부분은 '이용자의 모서리 선호를 발견하여 벤치·앉음벽 설계에 반영한 사람'이라는 연결이다. 올바르게는 지젤은 사용 후 평가와 환경행태 조사 방법을 체계화한 인물이다.
③ X: 벨은 환경심리학의 일반 이론과 인간-환경 관계를 폭넓게 설명한 인물이다. 틀린 부분은 '소규모 공공공간의 모서리 선호를 발견하고 이를 공원설계 요소로 구체화한 사람'이라는 연결이다. 올바르게는 벨은 환경심리의 개념을 정리한 인물로 보는 것이 맞다.
④ O: 조르다와 닐은 소규모 공공공간 연구에서 이용자가 가장자리와 모서리 부근, 다양한 형태의 앉을 수 있는 장소를 선호한다는 점을 관찰하였다. 이 관찰은 벤치, 앉음벽, 플랜터 가장자리 같은 요소를 공원과 공개공지 설계에 적극 반영하는 근거가 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의 뉴먼은 '영역성'이라는 단어 때문에 가장 헷갈리기 쉽다. 그러나 뉴먼의 영역성은 방어공간과 범죄예방 맥락이고, 이 문항은 공공공간의 좌석 배치와 모서리 선호라는 미시적 이용행태를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 문제는 공통 키워드 하나만 보지 않고 대표 장면을 함께 묶어 판단한다. 영역성+범죄예방이면 뉴먼이고, 관찰조사 방법론이면 지젤이며, 공공공간의 모서리 선호와 벤치·앉음벽 배치이면 조르다와 닐이다.

암기 포인트

뉴먼은 방어공간, 지젤은 조사방법, 조르다와 닐은 모서리와 앉음벽이다.

NoteBase

문 18. 「조경진흥법」 및 「조경진흥법 시행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관한 조경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④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에 따른 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는 계약금액 5억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조경진흥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경진흥기본계획,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조경진흥법 시행규칙」상 품질향상대책 대상 공사의 기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조경진흥기본계획 =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조경분야 진흥의 기본 계획이다.
품질향상대책 =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과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발주청이나 시공자가 마련하는 대책이다.

핵심 구분

국가는 조경분야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주체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지방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주체이다.
또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전문인력 교육훈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으며,
품질향상대책 대상 조경공사는 시행규칙상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18 · 6월

선지별 해설

① O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므로 옳다. 조경진흥기본계획은 조경분야 진흥의 중장기 기본 틀에 해당한다.

② O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옳다. 이 선지는 법의 권한 규정을 그대로 묻는 형태이다.

③ X
틀린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국가의 책무처럼 바꾸었기 때문이다.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주체는 국가이다.
틀린 표현: "지방자치단체는 …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올바른 표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지방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O
시행규칙상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에 따른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는 계약금액 5억원 이상인 공사이므로 옳다. 금액 기준을 묻는 정형 문제이다.

오답 포인트

③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뒤바꾸고, 국가에 붙는 '종합적인 시책 수립·시행' 문구를 지방자치단체에 붙인 점이 함정이다. 법령 문제에서는 주체와 의무 표현이 바뀌면 정답이 갈리는 경우가 많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령형 선지는 먼저 주체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의무인지 재량인지, 마지막으로 기간·금액 기준이 있는지를 본다. 이 문제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구분, 5년 주기, 계약금액 5억원 기준을 잡으면 빠르게 판단된다.

암기 포인트

국가는 종합시책, 지방은 지역시책, 기본계획은 5년, 품질대책 공사는 5억원 이상이다.

NoteBase

문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역사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중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로 정하는 역사관련시설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향교, 서원 등 역사성을 보유한 현존 시설

② 자료관, 기념관 등 역사 보존·관리에 필요한 시설

③ 전통문화체험관 등 역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체험,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④ 서울 시내 소재 모든 사찰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역사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역사관련시설을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가 어떻게 열거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조례상 허용시설의 구체적 열거와 포괄적 확대 해석의 금지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역사관련시설은 역사공원 안에서 역사자원의 보존, 관리, 계승, 체험을 위해 조례가 구체적으로 정한 시설이다.

핵심 구분

역사공원에 둘 수 있는 역사관련시설은 조례가 열거한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 따라서 역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울 시내의 시설 전체를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는 없다.
조례는 향교·서원 등 역사성을 보유한 현존 시설, 자료관·기념관 등 역사 보존·관리에 필요한 시설, 전통문화체험관 등 역사·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체험·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규정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향교, 서원 등 역사성을 보유한 현존 시설은 조례가 정한 역사관련시설에 해당한다. 역사공원 안에서 역사자체를 보여 주는 현존 시설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② O: 자료관, 기념관 등은 역사 보존·관리에 필요한 시설로 조례에 직접 열거되어 있다. 보존과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③ O: 전통문화체험관 등은 역사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체험,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로 조례가 인정한다. 단순 전시가 아니라 체험·교육 기능까지 포함한다.
④ X: 서울 시내 소재 모든 사찰은 조례의 열거 범위를 벗어난다. 사찰 일반을 서울 전역 기준으로 일괄 포함하는 규정은 없다.
틀린 표현: 서울 시내 소재 모든 사찰
올바른 표현: 향교, 서원 등 역사성을 보유한 현존 시설처럼 조례가 구체적으로 정한 역사관련시설만 해당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는 역사성이 있는 시설이면 모두 포함될 것처럼 범위를 과장한 선지이다. 이 문제를 틀렸다면 조례의 열거규정을 예시규정으로 오해하여 포괄적으로 확장한 경우가 많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령이나 조례가 시설 유형을 여러 호로 나열하면 먼저 열거규정인지 확인한다. 그다음 선지가 열거된 문구를 거의 그대로 옮긴 것인지, 아니면 대상을 전부·모든 등으로 넓혀 과장한 것인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역사공원 역사관련시설은 현존 역사시설, 보존관리시설, 체험교육시설의 3갈래로 기억하고 포괄표현은 경계한다.

NoteBase

문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계획으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여 대상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① 지구단위계획

② 토지이용계획

③ 토지관리계획

④ 환경관리계획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의 법정 정의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토지이용의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 대상 지역의 체계적 관리라는 정의 문구가 어떤 계획명과 연결되는지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지구단위계획 = 도시·군관리계획의 한 종류로서, 일정 지역을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세부 계획이다.

핵심 구분

원칙적으로 문제의 정의 문구는 지구단위계획을 가리킨다.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정 계획이고, 보기의 토지이용계획·토지관리계획·환경관리계획은 이 조문의 정의 문구에 대응하는 법정 계획명이 아니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18 · 6월

선지별 해설

① O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여 대상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라는 정의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② X
- '토지이용'이라는 단어가 정의 문장에 들어 있어도 법이 그 정의 대상으로 삼는 계획명은 토지이용계획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이다.
- 틀린 표현: 토지이용계획
- 올바른 표현: 지구단위계획

③ X
- 토지관리계획은 보기의 정의 문구와 일치하는 법정 계획명이 아니다. 이 문항의 핵심은 관리 대상이 토지라는 점이 아니라, 특정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점이다.
- 틀린 표현: 토지관리계획
- 올바른 표현: 지구단위계획

④ X
- 양호한 환경 확보라는 표현 때문에 환경관리계획으로 오인하기 쉽지만, 해당 정의는 환경 일반을 관리하는 계획이 아니라 지역 단위의 토지이용과 공간구성을 구체화하는 지구단위계획의 정의이다.
- 틀린 표현: 환경관리계획
- 올바른 표현: 지구단위계획

오답 포인트

문제 문장에 들어 있는 '토지이용', '환경' 같은 일부 단어만 보고 ②나 ④로 끌려가기 쉽다. 그러나 법령형 문제는 문장 속 키워드 하나보다 전체 정의 문구가 어떤 법정 용어를 완성하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토계획법 정의형 문제는 목적 문구 전체를 묶어서 본다. '토지이용 합리화 + 기능 증진 + 미관 개선 + 양호한 환경 확보 + 대상 지역의 체계적 관리'가 한 묶음으로 나오면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떠올리면 된다.

암기 포인트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세부 공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이다.

NoteBase